

## 문헌 육담의 성 경제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어면순」, 「속어면순」을 중심으로—

이지환\*\*

<차 례>

1. 문헌 육담의 성 경제적 비평
2. 남근 가치의 기준과 평가
3. 남근자본증식과 모순적 분배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헌 육담이 전달하는 성적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성 경제학, 기호학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정한 문헌 육담들에서, 포괄적인 성 생활의 기반과 성 행위들은 남근 중심적, 남근 주도적으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유효하고 다원적인 성적 가치들은 남근의 교환가치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서 상호호혜적일 수 있었던 성 경제적 교환은, 성 억압적이고 젠더 위계가 강한 사회에서는, 다른 성 경제에 대한 착취로 변질된다. 그 착취들을 심층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남근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했다. 본고는 먼저 문헌 육담 속 성교 서술 및 남근 가치에 대한 논평, 성 지식에 관련된 서술 등을 분석하여 남근 가치에 대한 과잉 평가 및 가치산정 기준 등을 파악했다. 남성기리 여성을 교환하는 체계는 여성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대상화한다. 그렇게 대상화되고 일방적으로 가치부여된 여성과의 성교를 통해, 남근의 가치가 매개적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유동적이고 유효한 성 경제적 가치들을, 고정적이고 자의적인 남근적 교환 가치로 대체하면서, 남근 자본이 증식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강제된 성적 가치의 생산과 착취를, 감정 및 성적 노동으로서 보는 모델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5일 한국구비문학회 동계학술대회(연세대 젠더연구소 공동주최)에서 발표한 동명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을 구축했다. 그 모델을 통해 불가능한 쾌락의 생산과 분배의 전도가 일어남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했다. 즉 남근자본주의자가 부당하게 가치를 착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가치 생산 과정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을 포착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은 총체적인 성 만족을 잃는 성 기능장애(오르가즘 불능)를 겪는다. 이들은 인지부조화에 의해 강제적인 성교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효한 성적 가치생산을 위한 자기 조절에도 실패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고는 남근자본주의가 유발하는 폭력들이나, 논리적인 왜곡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본고는 특정한 종류의 성 억압, 성적 괴롭힘, 성폭력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사적이고 내밀하다고 규정되어온 성 생활이,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갖는 관련성을 더욱 발견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 노동 및 성적 텍스트의 실제적 영향력에 관한 페미니즘 논의들을 이론적으로 보충했고, 한국 남성성의 기초를 계보학적으로 마련하였다.

□ 성 경제, 기호학, 성 노동, 남근자본주의, 욕담

## 1. 문헌 욕담의 성 경제적 비평에 대하여

이 논문은 문헌 욕담의 기본적인 의미 체계와 성 경제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그 관계를 읽기 위한 성 경제(sexual economy) 비평을 설명하고, 문헌 욕담 해석에 대해 성과를 가설적으로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의미 관계, 텍스트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그리고 연결, 재구성하려고 한다. 본고는 추상적으로 작품/이론, 혹은 작가/작품의 이분법을 상징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러한 상징들은 세상(野)의 이야기(談)를 편저한 야담 텍스트들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고는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는 다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은 이론 텍스트, 기본 텍스트, 해석 텍스트

가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재구성하고 확장시키는 다원적인 논리적 전개를 추구한다.<sup>1)</sup> 이에 따라서 성에 관련한 의미들이 문헌 육담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의 일차적인 해석에 순응하기보다 그 해석들에 내재한 모순과 균열을 파악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육담은 성기를 중심으로 한 대상 및 신체의 표현들,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적 충동과 만족의 표현들, 이 표현들의 서사적 배열 등을 기반으로 수용자에게 성적 가치를 가진 의미를 전달하는 이야기다.<sup>2)</sup> 그리고 문헌 육담은 구술 연행된 육담들이, ‘편저자이자 청자’를 거쳐 글로 옮겨지거나, 혹은 지어지게 된 것이다. 문헌 육담은 고정된 기술 언어의 일차적 의미에 기

- 
- 1) 그 전개의 원활함을 위해 기존 논의 검토 및 그것들에 대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는, 글 전반에 걸쳐 각주에 주로 두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분석 텍스트 선정 이유를 설명한다. 본고는 ‘어떤순’이나 ‘속어면순’, ‘송세립’이나 ‘성여학’에 대한 의미의 일원화를 시도하는 논의는, 야담집의 특성 상 통합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본다. 이 야담집들은 전기 문헌 육담이면서 명시적으로 특정한 담론들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을 여럿 담았기에 선정되었다. 본고는 논의하고자 하는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텍스트들을 위주로, 그 의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통합될 수 없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텍스트 외적인 것들에 맞춰 통합하려는 노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 2) 일반적으로 육담은 성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할 수 있고, 신동훈은 “(내용과 표현의 양 측면에서) 성적 관심과 흥미에 초점이 놓이는 이야기”(81쪽)로 보며, 황폐강은 “허물없는 사람끼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담없이 주고 받는 성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이자 “성의 감각적 측면인 에로티시즘에 가깝다”고 본다.(149~150쪽) 김영진은 “민간에 전승하는 성기와 성행위를 소재로 한 웃기는 짧은 이야기”로 정의한다(13쪽). 신동훈은 성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육담의 목표를 지적했고, 황폐강은 생산 및 수용의 화용론적 차원 및 소재의 감각적 특성을 주목했다. 김영진은 소재 및 양식적 특성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간명한 정의로 시작하기 위하여, ‘웃감’이라는 속성은 일단 다루지 않았다. 각각은 김선평 외,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에 실린 논문들로서, 신동훈,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 81~116쪽, 황폐강, 『고소설에 나타난 육담의 의식과 세계관』, 149~157쪽, 김영진, 『한국육담개론』, 9~29쪽.

반해서, 수용자의 해석체계들을 거쳐, 성적 형상들(images and diagrams)과 그것들의 사건적, 상화적 배열들(structures and narratives), 성 담론들과 메타 담론들이 된다. 이 과정들은 특정한 해석 습관을 공유하는 수용자에게,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문헌 육담을 수용하는 사람이 갖는 성 경제는, 신체적 상태<sup>3)</sup>, 심리적 역사<sup>4)</sup>, 사회적 계층 등이 미치는 영향을 받는다. 성 경제는 그 영향에 따라, 다양한 현상들과 대상들에 대한 성적 가치 생산 및 해석 과정을 진행시킨다. 이 생산 및 해석 과정에 따라, 성 경제는 성 흥분과 성 만족을 조절하고, 특정한 성적 표현들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평가하고 행위하는, 자기-조절적인 체계이다. 특히 성 생활에서 기호 해석의 영향을 보다 다원적으로 고찰하는 입장<sup>5)</sup>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의 성 경제는, 다른 성 경제 및 사회, 경제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복합적인 경제를 이루게 된다. 이를 다루는 성 경제학은 정신분석과 마르크스주의를 생리학적 이해를 통해 결합한 빌헬름 라이히가 처음 주장했다. 그는 성

- 
- 3) 인지는 추상적인 반성적 정신을 구성하고 그에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 상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성 인지는 신체 자극들 및 그 자극들을 처리해야 하는 신체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것들의 복합적인 관계들을 통해 작동하는 신체적 상태이다.
  - 4) 심리적 역사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심리 상에서 이루어진 일, 현상들의 통시적인 관계를 말한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심리활동들은 공시적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이다. 통시적인 관계는, 예측, 기대, 목표, 상상 등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포함한다.
  - 5) 본고는 논리적 전제들에 있어서, 프로이트,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아니라, 성 과학 및 빌헬름 라이히의 성 경제학(정신분석학의 생물학적 기초를 보다 탐구하고, 사회 속의 생체와 정신을 탐구하는)의 입장이다. 성 경제는 상식적인 사회 및 경제와도 관련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이 작동하는 체계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본고는 의미 분석에 있어서 구조주의나 기호론(semiology)이 아니라, 활용되고 진화하는 의미들의 연결 경로 및 의미 규칙의 인식, 확장, 개선 등을 연구 대상 및 목표로 삼는, 해석 기호학, 실용주의 기호학(semiotics and pragmatism)의 입장을 취한다.

경제학을 통해, 사회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들이 개인의 몸을 경유하면서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가, 개인의 리비도 경제 및 성 생활, 즉 사회적 인간의 성적 자기 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구했다.<sup>6)</sup> 물론 육담은 몸과 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문헌 육담의 생산과 수용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헌 육담이 갖는 의미 작용들을, 하나의 성 경제에 관련해서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문헌육담의 독자는, 언어적이고 반성적인 상위 의식에서 출발하여, 그것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매개로, 보다 하위 의식들에 영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문헌 육담의 성 경제에 대하여 논하려면, 경제 비평이 필요하다.<sup>7)</sup> 경제 비평은 의미의 증식, 의미들의 가치 해석, 다른 의미들과 교환되는 과정, 즉 의미의 체계 및 경제를 고찰한다.<sup>8)</sup> 타자의 몸, 표현, 행위

6) 성 경제 개념은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오르가즘의 기능』에서 이전의 정신분석학적 성 충동과 성 만족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과 경제, 사회 구조, 윤리 담론 등의 영향과의 관련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생리학적 이해와 연결하면서 출발하며, 『파시즘의 대중 심리』, 『성 혁명』, 『성 정치』에서 보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적으로 확장되었다. 자세한 것은,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황선길 옮김, 『파시즘의 대중 심리』, 그린비, 2006. 그리고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윤수중 옮김, 『오르가즘의 기능』, 그린비, 2005. 같은 저자와 역자로, 『성 혁명』, 중원문화, 2010. 『성 정치』, 중원문화, 2011 참고.

7) 본고는 신경경제비평에서의 다양한 조류 중에서 텍스트 내적인 가치 순환(internal circulation)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 외적인 가치 순환(external circulation)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 핵심은 의미들을 통해 파악되는 가치들의 역동적인 전달 및 변화 과정과 가치들의 위계를 분석하고, 텍스트 내적 행위자들과 수용자들의 사고 모델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Martha Woodmansee, Mark Osteen, *The New Economic Criticism*, Routledge, 1999, pp.36~37.

8) 여기서의 경제는, 현대에 일반적인 시장 및 시장 경제가 아니라, 체계(economy)에 가까운 것이다. 그 경제는, 자기 외부에 관련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들을,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삼는 체계이다. 그러한 체계는 외부의 요소들과 선별,

등에 가치를 부여하고, 상상적, 실제적, 상징적으로 증여 및 교환을 하는 것은, 성 경제의 작용, 즉 자위와 성교에 필수적인 의미작용이다. 의미 경제와 성 경제적 관점에서, 육담은 성교의 성 경제적 작용을 표현함으로써, 개별 성 경제가 특정한 성적 의미를 통해, 성적 가치를 얻도록 돕는다.<sup>9)</sup>

포섭, 배출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상호 작용의 양상 등을 조절한다. 이 조절에는 평가하고 그 평가를 행동과 연결하는 가치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제 체계는, 한편으로는 자율적,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규정적으로 작동한다. 요약하자면, 본고가 말하는 경제는, 자기를 벗어난 외부(장)에 대하여, 가치 체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자기-조절하는 체계이다. 이 경제 체계는 물리적 작용들이나 생체 활동을 포괄하면서 넘어서서, 문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적 의미들은 물리적 작용들이나 생체 활동을, 포섭하거나 제거하고, 분리하거나 연결하고, 대체하거나 절합하고, 반복하거나 변형한다. 하나의 경제는 외부(장), 생체, 가치, 행위자(소비자, 노동자), 가치 체계, 포괄적인 상위 경제(사회) 등이 필요하다. 성 경제에는, 자극이나 긴장을 형성하고 해소하는 생체, 쾌락(성적 가치), 성적 행위자, 가치 체계, 사회적 관계 및 성 담론 등이 관련된다. 그리고 의미 경제는 인지, 텍스트, 의미 가치, 해석자, 언어 체계 및 담론 등이 관련된다.

- 9) 캐서린 A. 맥키넨과 본고는, 텍스트가 현실 구성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포르노는 단순히 경험을 표현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대체한다. 메시지를 현실에서 가져오는 것을 넘어, 포르노는 현실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서 실존적으로 거기 존재한다.”(51쪽) 의미와 텍스트들의 형태는 실제로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실재를 대체한다. 실제적인 육체, 육체적 접촉, 그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에 대한 표현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에 관한 의미들의 체계적인 자기 조직화(즉 의미 경제)는, 성 경제적 주체들을 조직, 변형시키고, 특정한 태도나 행위들을 강제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즉 “여성들은 포르노 업자들이 ‘말하고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르노는 제작할 때의 조건, 말하자면 성적 지배를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준다”(51쪽), “성적 대상물이 되는 것이 여성다움을 의미하게 되고 일방적인 행위가 상호관계로 인식되게 되고 강제가 동의를 의미하게 된다.”(52쪽) 맥키넨의 주장처럼, 특정한 현상들에서 표현은 표현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실체이자, 물리적 실체를 구성하거나, 참고되는 기반, 심지어 강제하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나 맥키넨의 주장은 치밀한 의미 작용에 대한 고찰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간을 건너뛰어,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연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 논리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증거들의 구체성과 ‘건전성’과는 달리,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을 얻기는 힘든 논지전개이다. 이 지점에서 실제들, 혹은 기호들과, 특정한 영역 속의 기호들(가령 육담이나 포르노 속의)이 서로 쌍방향적인

이러한 의미 경제와 성 경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 상품화가 가능해지는 데, 그 기반은 성의 극단적 의미화이다. 실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증여와 교환이 유연하게 상존하는 호혜적 성 경제는 성 부정과 성 억압을 일으키는 젠더 질서 강제 하에서 균열, 왜곡, 비활성화 된다. 다양하고 유동적인 성 생활의 기반들과 성적 의미와 가치들을, 일방적이고 신화적인 남근자본<sup>10)</sup>주의적 교환가치로 대체하고 고착시킨다. 그러면 성 생활의 풍부한 유효가치 생산은 궁핍해지고, 자의적인 관념들에 의한 행위와 욕망

---

역동성을 갖는다는 기호학적 입장이 유용할 수 있다. 기호학은 의미와 현실의 매개 지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한다. 포르노의 실제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들은 기호학, 혹은 의미과학, 인지과학, 화행이론 등의 지원을 받을 때, 논리적인 연결에 필수적인 중간 전제들, 해석의 매개체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캐서린 A. 맥किन(Catharine A. mackinnon), 신은철 옮김,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1997, 51~52쪽.)

- 10) 여기서의 자본은 단순히 성 경제에서 활용되는 대상 수준이 아니라, 자기증식성이 강한 남근교환가치 및 그와 부분적으로, 위계적으로 교환되는 남근자본주의자 공동체 내에서 인정된 성적 가치들을 말한다. '자본'은 '상징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는 인지작용에 관련되어 있고, 엄밀히 말하자면 자의적인 기호들의 변증법적 순환에 따른 상호 강화에 기초한다. 이는 인간 언어활동의 본질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원시 화폐에서부터 발동한다. 교환 가능한 가치를 고정하는 것은 인류 초기부터 태동한 사고 작용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에서 가치의 형태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달성된다. 남근자본주의적인 성 경제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 M-C-M의 순환이다. 남근자본주의적인 성교, 즉 "순환을 일으키는 동기와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가치 그 자체다."(195쪽) 그리고 그 속에서 남근, 즉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증식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198쪽), 마지막으로 그 속에서 남근의 소유자는 "이런 유통의 객관적 내용[가치증식]이 그의 주관적 목적이 되고 추상적 부를 점점 더 많이 취득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유일한 추진적 동기가 되는 한, 그는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인격화한 자본, 즉 자본가로 기능한다."(199쪽) 여기서의 '객관적'은 물론 성 경제와 의미 경제의 특성에는 부적합하다. 실제로 대부분 그러하지만, 특히 문헌 육담의 성적 가치 유통 속에서 쾌락이 생산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그리고 자의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합리화하는 담론이 남근자본주의이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김수행 옮김, 『자본론1』, 2015, 195~199쪽.)

을 성적 주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성 경제의 상태를 남근중심적인 성 자본경제로 본다. 여기서 ‘남근자본주의’는, 성 경제에서 젠더의 작용과, 일반 경제에서의 자본의 작용이 심층적으로 공유하는 특수한 의미 관계, 기호작용 등을 고찰하기 위한 학술적 개념이다.<sup>11)</sup> 그렇

- 11) 여러 심사자께서 이 표현에 대해 언급해주신 바, 이 용어들의 사용이 대체로 생경함에 따라, 각주 10번에 첨언이 필요함이 확실하다. 본고는, 아무리 과거라도(가령 고조선 시대이더라도), 화폐와 생산수단을 약착같이 독점하고 모으며, 그 증식을 그 당대의 모든 이념들이 지향하는 가치보다 높게 두며,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자이며 자본가라고 부르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를 수전노, 돈귀신, 졸부 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사유들에 보다 기반한다. 인류가 다양한 범주의 교환들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미래에 언어를 물질을 예상하여 노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공동 재산과 사유 재산의 생산 및 분배 중 어느 하나가 완벽히 그 사회를 독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호혜적 사고와 이기적 사고, 호혜적 행위와 이기적 행위가 언제나 얽혀서 작용해왔다. 그것들은 선악과 마찬가지로, 여러 층위와 기준에서 그 이해가 어떤 것에 주로 속해야하는지 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순수하게 이기적이거나, 순수하게 증여적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아 통제와 치밀한 이해관계 및 작용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떤 순수한 일원적 사고로 점철된 사회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일 뿐이며, 교환이 없는 사회는 예컨대 외에 없다. 말과 사물이 최초로 교환된 순간 그 사회의 형이상학적 순수성은 붕괴된다. 그래서 본고는 마치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자본을 고려하는,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여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자본)의 증식을 가장 우세한 삶의 목표로 두는 이념(자본주의)이 다른 이념들보다 우위에 선 사회는 지금을 포함하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임이 분명하다는 점이 확실하다는 점을 본고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대상 텍스트가 생산된 시기인 조선 시대 초기, 중기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조선 시대는, 다른 시대의 다른 기부경제 사회와 일정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남근 가치의 보존과 증가를 중요한 삶의 목표 중 하나로 두는 사회’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본고는 남근자본주의적인 사고가 특히 드러나는 부분(그 증식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보일 때)에서는, 그들에게 ‘남근자본주의자’라는 말을 적용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자가 아닐 수 있어도, ‘남근자본주의자’일 수는 있는 것이다. 이 시대가 그러한 사고 경향이 가장 특별하게 심화되고 강화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지난하고 방대한 계보학적 작업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거칠게 추정해볼 수 있다. 주자가례의 충실한 적용을 비롯하여, 조선의 경제육전, 경제속육전, 경국대전 등으로 이어지는

지만, 독자에 따라, 단순히 성 경제의 특정 작용의 이해를 돕는 비유로 보아도 충분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문헌 육담의 특성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sup>12)</sup> 기술된 이야기들은, 담론을 품고 있고, 상징을 활용한다. 특정한 경우에, 성적 주체들의 실제적인 성 경제와, 성에 대한 상징들이 간극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유효한 성적 쾌락의 다원성이, 하나의 성기가 규정하고 제어하는 쾌락으로 파편화하고 고정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성의 극단적 대상화 및 상품화, 그리고 성적 가치 생산의 주도권과 가치 독점(착취)이 실현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다양한 성 경제는, 남성/여성의 위계적인 이성애적 성 자본경제(젠더 불평등적인 사회 구조)로 고정될 수 있다. 즉, 상징 질서의 차원에서 ‘경계 고착화(enclosure)’를 겪을 수 있다. 자유롭게 다원적인 성적 가치 생산과 공유 행위는, ‘남근자본주의’를 통하여, 억압되고 일원화된다.

본고는 성 긍정과 성 해방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성 지식을 전달하고, 성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담들, 특히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호혜적 행위들이 있는 육담들을 긍정한다. 그것들은 성적 주체들

---

법치주의의 완비가 대상 텍스트들의 생산 직전까지 이루어졌다. 그러한 사회 구조의 재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성리학적 통치, 엄밀한 신분제도, 결혼 및 가족 제도 등에 의한, 결혼 경제 및 젠더 위계의 확립이 일어날 수 있다. 그에 부합하여, 성 경제들의 가치생산 기반의 일원화와 그 성기들 간의 가치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여성에 대한 성 억압과 성 부정이 상호증폭적인 순환 과정으로 심해질 수 있다.

12) 신동훈은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에서 육담의 향유층의 차이와 내용의 차이의 관계를 지적한다. 여기에 매체적 차이가 성 경제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체와 사고의 관계 제시는, 두 향유층의 성 사유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전제한다. 계층 차이를 확보하는 유교적 성 억압에 의한 성 궁핍, 양반 남성의 공동체에 의해 규정되는 상징적인 성적 가치의 증식이 고정적 기술 언어와 함께한다. 하위 계층의 보다 원활한 경험적 성 경제적 행위는 기술 언어에 의해서 축자적으로 고정되지 못하며, 경험적인 성 가치로서 구술 언어와 함께한다.

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다양한 성적 가치를 회복시킨다. 이는 포괄적인 성 생활 속에서 타자에 대한 깊은 고찰과 배려, 진실한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한 욕담들에 나타나는 남근자본주의, 즉 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왜곡된 성 지식과 불평등한 성적 가치 배분 체계를 재현하는 것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분석은 「어면순」, 「속어면순」이라는 전기 문헌 욕담<sup>13)</sup>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성 생활을 규정하는 사회적 계층 구조, 가족 제도, 경제적 조건들과 관련된 성 경제의 변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sup>14)</sup> 다양한 형식 및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욕담들은 심층적

13) 욕담 자료는 민속학자료간행회 유인본 『고금소총』을 참고하고, 인용은 김현룡 옮김, 『고금소총』, 자유문학사, 2008에서 했다. 김현룡 번역본은 총 5권으로, 「어면순」은 5권에, 「속어면순」과 「춘담해이」는 4권에 수록되어 있다. 인용문에 권수는 따로 명기하지 않고 제목의 쪽수와, 인용문의 쪽수만 명기한다. 이야기 텍스트만을 고려하면 (그리고 본고는 수록된 이야기의 내용만을 고찰했다), 유인본에 실려 있는 것으로 여지없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것들이 일반 독자에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했다.

14) 익명의 심사자가 적절히 지적한 바,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음의 주제로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그 연속은 적절한 논의 수준 및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 분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완성성과 연속성은 모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주장된 남근자본주의의 실제적인 작용성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이것이 이 논문의 귀결 중의 중요한 부분이다)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1. 남근자본주의자의 남근 상실에 대한 불안, 여성의 성 경제에 대한 신화와 여성의 정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것들의 강도의 증가에 의한 여성 성 억압 및 성 부정의 심화가, 상호적으로 순환-증폭된다는 것이다. 남근자본주의는 성적 가치 생산을 남근에 일원화했기 때문에, 그에 의한 강제적인 성교가 자신의 여성에게 쾌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놓인다.

2. 다음으로 여성은 순결해야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간을 당한다.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해서 죽거나 소문이 나서 고통에 빠진다. 이러한 순결과 소문의 모순적인 관계 때문에, 여성은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 방침을 딱히 마련하거나 실천할 수가 없다. 즉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도 없는데,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는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다시 남성은 1과 함께 불안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부정을 강화한다.

인 남근 가치 증식 과정 및 그것의 폐해 등이 나타나는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정한 의미 경제를 통하여 다원적, 유동적 성적 가치들을 상징적 남근교환가치로 대체할 때, 사람들의 성 경제들은 그 대체의 강도나 양상에 따라 다양한 곤궁과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문헌 육담이 수용자에게 성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두 질문이 가능하다.

1. 문헌 육담은 그것을 수용하는 성적 주체에게 어떠한 유형의 성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2. 그리고 어떠한 성적 주체가 그러한 성적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여 제공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성 경제의 작동 속에서 다양한 성적 가치 생산의 과정들이 갖는 특성과 구조에 따라 연역적, 가추적으로 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쾌락을 재현하는 이야기 속 행위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 답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먼저의 결과들을 틀로 하는 육담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귀납적으로 설명된다.

남근자본주의적인 문헌 육담의 핵심은 강간에서 남성의 육체적 쾌락을 은폐하고 여성의 쾌락을 모순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노출한다는 것이다. 혹은 일반적인 성교에서 생산되는 쾌락이 여성만 과도한 것으로 표현

---

이러한 연속은 현대 사회에서의 쾌락과 자기 근원성에 대한 전도적인 오해, 피해자 다움과 죄책감의 부당한 부과,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하여 강간 피해, 강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성, 의심에 의한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본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들, 그 모순적인 왜곡들과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신화적 사고들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의 일면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된다는 것이다.<sup>15)</sup> 남성이 육담을 보고 성적 쾌락을 느낀다는 전제하에서, 남성이 남성에게 몰입한다면, 남성의 육체적 쾌락이 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징적 남근자본의 증식이 아니라, 남성 개인의 복합적인 성 경제(실질적, 상징적 가치들의 순환)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쾌락만이 서술되는 점에서 다시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ㄱ). 남성이 여성의 입장이 되어 쾌락을 느낀다. (ㄴ). 여성의 쾌락은 남성의 특정한 쾌락, 즉 특정한 성적 가치를 증가시킨다.<sup>16)</sup> (ㄱ)은 자기모순적인 가설이기 때문

15) 류정월은 “성소화에서 남성들의 성적 쾌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쾌감을 외치거나 고백하지는 않는다”(397쪽)고 지적한다. 이와 반대로, 여성들이 극도로 쾌감을 표현하는 비대칭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성관계 전과 후에 여성들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성적 만족감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조적 태도는 그녀들이 성적 만족감을 느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성적 만족감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성의 능력 혹은 정력이다”(400~401쪽) 이를 류정월은 “남성: 여성, 유희자: 유희당하는 자, 성적 쾌감의 부재: 성적 쾌감의 과잉”(401쪽) 등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통합해서, 느끼게 하는 자: 느낌을 당하는 자로 말할 수 있다. 심리적 가치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느낌 기호인 만족감은, 성 경제 주체의 성 경제적 생산 및 운용, 그리고 성 경제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양상을 재현하기 위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남근자본주의자는, 쾌락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사회의 향유를 통해, 남근의 가치를 전이 받는다. 이는 생물학적 성의 문제라기보다, 그 담론을 통해 남근의 가치 증식을 욕망하는 정도에 따르는 문제다. 이러한 지점에서 향유의 성적 차이는, 전이를 통한 가치 증식과 남근 자본적 가치 증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들은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나, 실제 작용에서는 단절될 수 없다. (류정월,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396~401쪽.) 김세라 또한 이를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점을 견지하는 폭력성”(123쪽)이라 포착했다. “둘이 나누는 사랑의 기쁨은커녕 남성의 쾌락은 사라지고 오직 여성의 열락만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위악적인 유희자체에 중독되거나 도취되며 철저히 사물화된다. 남성은 기쁨을 알려주는 존재일 뿐이고 여성은 그 기쁨을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로만 나타난다”(128~129쪽) (김세라, 『『古笑笑叢』에 나타난 남녀의 권력관계 연구』,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2016, 122~130쪽)

16) 다음과 같은 유럽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보면, 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언급은 의문스러운 현상을 간단히 기술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논설될 바가 없다. “트럼백이 논증하듯 포르노그래피 소비를 위한 사회적 상황은

에, 성립되지 못하는 가설임을 주장한다.<sup>17)</sup> (L)은 수용자의 성격이 모순되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포르노그라피에서 가장 명료하지 않은 영역은 남성의 성욕이다. 아마도 근세 초의 포르노그라피는 남성 독자들을 위해 남성에 의해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욕을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인 양, 거의 외곽으로 여성의 성욕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린 헌트(Lynn Hunt), 『서문』, 『포르노그라피의 발명-외설성과 현대성의 기원, 1500-1800』, 린 헌트 엮음, 조한욱 옮김, 책세상, 1996, 48~49쪽.)

- 17) 본고는 이를 수용하는 성적 주체를 남성적 성 경제 주체 혹은 남근자본주의자로 상정한다. 이는 그 사람들이 갖는 성 경제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즉, 성 경제의 작동 양상, 다른 성 경제와의 관계, 그에 대한 자기 인식에 따라, 성 경제적 주체가 규정된다. 육담에서 남성에 몰입해 읽는 것과, 여성에 몰입해 읽는 것은 다른 과정이다. 이러한 유효 쾌락에의 이중 소외는 성적 주도권을 규정하는 이분법적 젠더 위계 속 권력과 결합되어 있다. 느끼게 하는 자와 느낌을 당하는 자의 구분이다. 생물학적 남성이 느낌을 (강제로) 당하는 자로서 육담을 읽었다면, 그 개인의 성 경제는 남근자본주의적으로 가치를 착취하는 성 자본경제는 아니다. 다만, ‘완벽히 남성적인 성 경제 주체’는 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이상을 추구하거나, 추구하도록 강제되는 성 경제 주체들은 피로, 우울, 불안, 공포, 도착, 강박 등에 시달린다. 빌헬름 라이히는 이런 유형을 신경증적인 성기 장애의 한 유형으로 파악했다. 즉 “네 번째 집단으로는 여성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성에 환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발기하는 남자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며 성기를 사디스트적인 환상을 지닌 뚫는 기관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장교들, 민족주의적 학생들, 난잡한 바람둥이들, 작위적인 자부심을 가진 유형의 인간들에게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남근적-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의 남성들이며 모두 심각한 오르가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성행위는 단지 배설행위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혐오스러운 반응이 뒤따른다.”(197~198쪽) 남근적-나르시스트는 남근자본주의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본고는 남근 가치의 위계화, 상징적 고착의 과도한 강화를 문제 삼는다. 본고는 상징적 교환가치에 대한 집착들이 실제로 유효한 성 경제의 풍부한 활성화, 그리고 그 성 경제와 의미 경제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교란,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핵심을 자아의 보존과 증식에 집착하는 것이라 한다면, 자본가의 정신은 자본을 자아의 핵심으로 삼아 증식하는 자본적-나르시시스트이고, 남근 자본가는 남근 자본을 자아의 핵심으로 삼아 그 증식에 집착한다. 그러나 남근자본주의자의 범위는 남근적-나르시스트라는 협소한 정신분석적 범주를 포함하면서, 그것을 넘어선다. 남근자본가와 남근자본주의는 마르크시즘, 정신분석, 성 경제학, 기호학이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매개지점이고, 그 점은 본고의 고찰에서 대략적으로 드러난다. 필자는 사실상 수많은 장기적, 일시적 오르가즘 불능, 성 기능 장애가 남근자본주의 강화 및 남근자본

지 않으면서, 특정한 성적 가치의 수용자 모델, 즉 남근자본가 모델에 적합한 가설이므로, 본고는 (L)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명제가 뒤따를 수 있다.

- (㉔). 남성은 자신의 성적 가치를 위해 여성의 성적 가치를 필요로 한다.
- (㉕). 그 성적 가치의 존재론적 성격 및 생산 관계와 과정에 따라, 남성이 어떤 성적 가치를 원하는지가 규정된다.
- (㉖). 성교의 성적 가치 생산 과정에서 모두에게 유동적이고 유효한 성 경제적 가치를, 특정 성이 규정하는 고정적이고 상징적인 성적 가치(남근자본주의 성 경제 내에서 교환가능한 가치)로 대체할 수 있다.
- (㉗). (㉖)의 과정 중에서, 성적 가치의 증가와 그 잉여가치의 착취, 즉 성 자본가가 소유한 성 자본의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
- (㉘). (㉗)이 언어적, 상징적 해석 과정에서 일어나면, 육담은 상징적으로 교환 가능한 성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성 자본적 가치가 성적 가치 판단에 갖는 인지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남근자본주의적 사고에 강하게 고착된 상태라면, 남근자본가는 실제와 상관없이, 다른 성 경제 속 성적 가치 생산이나 그 가능성을 상징적으로만 해석<sup>18)</sup>하고(대개 과잉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성적교환가치로

---

축적의 실패(‘왜곡된 자부심 및 그것의 상실’)와 관련된다고 추정하고, 이를 보다 포괄적이고 비환원적인 해석 기호학으로 고찰해야한다고 본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윤수중 옮김, 『오르기즘의 기능』, 그린비, 2005, 196~198쪽.)

18) 이러한 지점에서 전기 성 소화에 대한 강상순의 기존 논의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 소화가 묘사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란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의 산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긴 하다.”(149쪽)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한 채 그는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만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을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 묘사한 것은 조선 전기 성소화가 보여준 인간학적 성취라고 할 만하다.”(149쪽) 근대의 자본가와 고전주의 경제학은 ‘이익을 욕망하는 합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지배적인 체제

삼는다. 이는 성 생리 및 성감, 자신의 성 경제의 활성화를 타자가 원하는 지 등과는 다분히 유리되며, 자기규정적인 가치부여 체계에 따른 해석<sup>19)</sup>이 유도하는 쾌락이다. 이는 앞서 정의된 육담의 한계를 넘는다. 이러한

---

와 생산 관계 하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게 했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그 인간이 생산한 잉여적인 가치를 보다 손쉽게, 보다 윤리적인 문제성을 숨기고 착취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과도한 노동에 소모된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그러한 소모를 조장하고 강제한 이들의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기만하고 은폐하려 했다: 노동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하므로, 모든 피해와 고통은 당연하다, 그리고 자본가와 정치가는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할 수 있게 하므로,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 경제의 착취가 일어나는 곳에서, 육담의 주체성이란, 남근 자본가의 남근자본 증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 성 소화가, 여성을 성적 육담의 주체로 묘사한 것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게다가 남근자본 증식을 일으키는 소화에서는 성적 육담의 주체로 묘사한 것이 오히려 문제적이다. 성적 육담의 주체이더라도, 남근자본주의적 성 경제와 상호호혜적인 성 경제 속에서의 성과와 성 경제적 주체는 다르다. 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주체가 성 경제적 주체로 호명되고 재현되는 것의 긍정성과 적절성은 그 성 경제의 상태와 그 성 경제가 놓인 환경(물리적, 기호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강산순, 『조선 전기 성 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149쪽.)

- 19) 이러한 해석 방식은 크리스테바가 지적했듯이, 마르크스, 프로이트, 헤겔, 소비에트 기호학과 등의 과학적 작업의 유효성이자, 동시에 그것들이 무효한 지점들이다. 그러한 문제점들, 변증법적 순환이나, 결정화된 기호들의 구조의 비반성적인 반복적, 독백적인 메아리 혹은 받아쓰기는 결정화된 결과들에 선행하는 역동적 작용을 이해할 수 없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강조하는 경제적 가치는 노동의 추상적 응고인데, 그 랑그(재현적인 가치 체계)에 기반할 때, 역으로 노동은 가치 생산을 위한 것이 되고,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파악되지 않거나 억압된다.(78~79쪽, 81~83쪽 참고.) 본고의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파악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 크리스테바의 방식으로 반성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존의 경제적 가치로 표현될 수 없었던 모든 종류의 행동들과 그 행동들의 원인들을 밝힌다. 그 행동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며 작동하는 자율적인 의미 공간을 설정하여, 기존의 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전복한다. (Julia Kristeva, 'semiotics: a critical science and/or a critique of science', *The Kristeva Reader*, trans. Seán Hand, ed. Toril Mo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범주의 성적 가치는, 다양한 담화 형식들, 가령 남근 가치에 대한 논평, 성 지식에 관련된 언술, 성기의 기능 및 가치(성교와 상관없는)의 제시 등에 의하여 높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성적 이미지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해석 기반을 생성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육담의 논의에 필요하다.

이 가정들에 기반하여, 본고는 육담에 나타난 성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행위, 그 행위의 양상과 맥락, 그 행위의 원리나 조건 등을 고찰할 것이다. 2장에서는 성적 가치 평가 혹은 기준들이 명시적인 담화들로 나타난 이야기들을 먼저 고찰하여, 가정들을 적합하게 재구축하고 확장한다. 그에 따라 3장에서, 다시 보다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성교 이미지 유도 등으로 남근자본주의적인 가치증식을 유도하는 육담을 분석할 것이다.

## 2. 남근 가치의 기준과 평가

우선 남근 및 성 능력의 가치와 기준, 다른 능력들에 대한 상대적 가치, 그리고 유사 남근들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이야기들부터 살핀다.

『속어면술』의 <늙은 기생의 판결>(238쪽)에서는 갑과 을이 성적 감흥이 남근의 크기, 기능 중 어느 것에 달려있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성여학에게 판결을 맡기고, 성여학이 역사적 기록에 따라 크기가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갑과 을은 다시 지나가던 늙은 기생에게 묻는다. 기생은 큰 것이 좋다면서 육보를 설명한다. 논평에서 이것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법칙에 따르는 판결이라 말한다.

우선 문제의 틀 자체가, 성적 쾌락이 남자에게 달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틀은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고, ‘양근’ 담론

이 우선시하는 가치(크기 및 길이)와 그에 대한 반명제(그와 상관없는 성 능력들)를 제기한다. 이는 이야기화된 논쟁을 통하여, 문제 제시 자체가 메타적으로 이후의 해석들을 틀에 가두게 되는, 변증적 순환이다. 이야기 속의 ‘성여학’은 갑을에 대해 지적 권위를 가진 행위자로서, 이전 이야기를 통한 논증을 제공한다.

중국 대사공의 『사기』중 『여불위전』呂不韋傳』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불위가 태후太后에게 바치려고 양근 큰 남자를 구하는데, 노독嫪毐이란 자가 자신의 크고 힘찬 양근에 수레바퀴를 걸고 돌려대는지라, 그를 데려다가 태후에게 바치니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전기들을 봐도 모두 큰 물건만 좋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 그 내용으로 내 판결을 대신하고자 합니다.(239쪽)

문헌 육담은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남근 가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립해왔을 것이다. 이어 나타난 늑은 기생은 이 변증적, 대화적 담론 생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화자로 제시된다. 이 기생은 ‘여자’이고 ‘경험’이 많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내용상으로 남근자본주의자의 언명, 즉 이야기 생산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 그렇다면 외적 조건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건들은 이야기에서 체현된 편저자(성여학)에서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텍스트 생산자의 담론의 자의성을 지운다. 그리고 조건에 부여된 권위를 목표로 하는 담론에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늑은 기생은 텍스트 생산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 갑을과 성여학이 논리를 제시하며 책임(담론 생산의 주체)을 지울 때, 이 기생의 발화는 그 담론을 재현된 ‘경험 많은 여성’으로서 확장하고 강화하며, 책임을 부담한다. 기생방의 육보六寶라는 다양한 남근 특성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그 외에 가치 해석에 활용될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그 파편적 목록 자체도 을의 승복과 감탄이라는 행위 기호에 의해 사실성이 증

폭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 능력의 기준은 남근의 특성으로 확인된다. 이어 제시된 논평은 이 전체를 포괄하면서, 늙은 기생을 매개로 하여 생산된 가치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이에 따라 남근 크기의 성적 교환가치를 격상한다.

『속어면순』의 <세 자매의 확인>(231쪽)에서는 혼인을 못한 세 자매가 여종에게 성교의 즐거움을 알려달라고 한다. 이때 여종의 발화는 성교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이 아니고, 남근에 독점적으로 과잉 가치부여를 하는 담론이다.

…신기하게 변화를 부리는 그 재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만물을 생성하고 삼라만상의 조화를 부리는 공적들은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입지요 정말이지 원네는 이 즐거움을 맛보지 않고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답니다. …서로 꼭 물리게 하면, 그때의 맛이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답니다. ‘철’이 ‘요’ 속에 깊이 들어가서 솥돌에 칼을 갈고 빨래할 때 문지르듯 서로 닿아 스칠라치면, 비야 흐로 마디를 녹여 사지에 빠가 없는 듯 몸이 풀어지고, 온몸이 사라지는 듯 물렁물렁해지면서, 살아있는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은 아주 묘사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된답니다.(232쪽)

이를 여종의 발화로 볼 수도 있고, 그 발화가 유도하는 담론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판적 목적에 따라 이를 기호 생산자가 기반하고 있는 담론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목소리로 발화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언명에 부과되는 남근자본주의적 담론의 실제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담론은 남근의 기능과 효과에 대하여, 언어를 초월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더 나아가 주술적인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서술한다. 남근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의 존재성과 효과를 증폭시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신화화는

의심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성 경제적 주체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기형인 것처럼 보게 할 것이다.

이 담론은 상호적 관계에서 증폭되는 성적 가치의 생산에 관련된 '다원적인 성적 기반들 및 조절 능력'<sup>21)</sup>을 남근에 독점적으로 할당한다. 따라

- 20)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남근의 '매개적 주술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것은 개념 상 실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실제 능력보다 너무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을 때에 성립한다”(49쪽) 즉 매개할 수 없는 것을 매개한다고 여겨지거나, 커뮤니케이션의 한 요소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자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다. “기호의 커뮤니케이션(교환)이 중요해질수록, 그 교환을 매개하는 것들(해석자, 초월적 해석소)이 강조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매개자를 강조할 때, 매개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자신을 강화하고, 따라서 다른 기호들 각각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획득한다. 이 연결의 매개체는 특수한 기호학적 속성을 갖는다. 때로 이것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효과와도 유사한 화용적 성질을 갖는다(거의 같다). 그것은 반복되며, 질적 차이를 무화시키며, 다른 기호들을 끌어들이며, 자신을 재생산한다. 그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기호이기도 하지만,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것들과도 연결되는 기호가 된다.”(42쪽) 성 행위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일방적이고 파편적인 이분법적인 성의 위계 구조는, 특정한 성기를 매개자로서 강조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이고, 수많은 차이를 ‘무화’시키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게 된다. 성 억압은 성교를 더 심하게 갈망하게 만들 수 있으며, 두 성 간의 성 자유의 격차는 한 성의 성기(남근)에 대하여 과도한 가치를 포괄적인 성 자본 경제에서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일부, 통합적 몸 이미지에 관련된 일부가 아니라, 성교의 매체가 되고, 주체와 분리되어 오히려 주체의 근원이나 목표인 것으로 왜곡된다.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2~49쪽, 참고.)
- 21) 빌헬름 라이히가 명시하듯이, 성 경제학은 배려가 있는 지속적인 관계에서야 완전한 성만족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지지한다. “공유했던 쾌락적이고 관능적인 경험의 결과로서 상대에 대한 성 유대. 이것은 즐긴 것에 관련한 감사와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성 쾌감과 관련한 성적 헌신(구속과 혼동해서는 안된다)의 강력한 혼합물을 지닌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연스러운 애정 관계의 근본 요소이다.”(198쪽) “배려의 지속적인 부재는 관능적인 경험을 감소시키고 그와 더불어 성 만족을 감소시킨다.”(199쪽) “사람 사이의 성 관계는 성 리듬의 적용이 생기고, 상대가 거의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준비하고, 특정한 성 욕구를 점차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야만 일치하는 만족과 성 에너지의 지속적인 정돈을 확보하기 때문이다.”(200쪽) 실용주의와 기호학을 전제로 하는 본고는, 라이히의 주장을 지지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다원

서 남근이 독점적인 쾌락의 생산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에 따라, 쾌락의 협력적 생산자로서의 여성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지우고, 스스로의 생산물에게서 소외된다. 여종은 남근이 생산하는 쾌락을 제공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 성적 쾌락의 자율적 생산 및 호혜적 성 경제의 공동 생산 과정은 완전히 와해된다. 남근은 여종을 살아가게 할 정도로, 극도로 높은 성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성교라는 쾌락의 생산 과정을 매개로 하여, 여종이 마치 남근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된 것이다. 남근자본경제에서는 남근을 통한 성적 가치의 제공이, 그보다 더한 가치들을 제공받는다. 그런데 ‘요’에 의한 남성의 쾌락, ‘요’의 성 경제적 능력은 기술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주체적인 욕망과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근의 과잉 가치 및 생산의 독점(이러는 환상)이 초점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크고 긴 남근 표현들, 그에 의한 과잉 쾌락 표현들은, 의미경제에 대한 성 경제의 복속과 그에 따른 남근가치상승에 기여한다. 남근 활용이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제공받는 이야기나, 남근 가치가 가치 위계에서 우위를 가지는 이야기들도 남근가치를 상승시킨다.

『어떤순』의 <부인 질투 멈추게 하는 법>(53쪽)에서는 난봉꾼인 자가 친구들에게 아내의 질투를 멈추는 법을 안다고 자랑한다. 기생집에서 자고 들어오니 아내가 잠도 못자고 기다려 화를 낸다. 지친 아내가 저항을

---

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나의 성 경제의 작동 방식과 타자의 성 경제 및 성적 해석 습관에 대한 창조적 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상대의 실제적인 쾌락을 나의 쾌락으로 느끼는 것, 스스로의 쾌락을 원하는 주체성도 매개적인 상호증폭과정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비예측적, 비동의를적, 과한 강도, 일원적, 고정적, 위계적, 비대화적, 비생리적인 성교가, 남근의 활용만으로, 높은 성 만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남근자본주의적 명제들을 부정한다.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성 혁명』, 중원문화, 2010, 198~200쪽.)

하는데도 강제로 성교한다. 끝나자 아내가 남편에게 따끈한 술상을 올린다. 이 이야기에서는 강제적 성교가, 질투의 중단으로, 술상으로 교환된다. 감정적 연속성이 역전되고, 심지어 물질까지 보상으로 제공된다. 이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남근자본주의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고, 모순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육담 속 성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유도하는 비윤리적 사유 형식을 드러낸다.<sup>22)</sup> 남근자본주의는 타자에 대한 전반

22) 이러한 지점에서, 기존의 이중잣대, 즉 아내와 하층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으로서의 구분은 성 자본 경제 하에서는 심층적인 동질성(남근 자본의 증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치가 일반적, 강제적으로 평가되는 존재) 및 결혼 제도의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해체될 수 있다. 김세라가 지적하듯이, “하층의 여성은 신분계급이라는 일차 차별에 이어 여성이라는 이차 차별로 인해 ‘이중 타자화’ 되는 존재”(122쪽)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아내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반적 성적 가치 평가절하라는 모욕을 견뎌야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억제된다. 하층 여성이 결혼제도와 신분제와 여성이라는 교차 지점에서 고통 받는다면, 아내도 가문의 명예라는 족쇄, 성 만족을 극도로 일반적으로 결핍시키는 결혼 제도, 여성이라는 교차지점에서 또한 고통 받는다. “아버지와 오빠와 동생이라는 뒷배경”(119쪽)은 족쇄이며, 타자에 의해 강제된 “도덕적 주체”(118쪽)라는 이름의 ‘형들’이기도 하다. 결혼과 여성이라는 지점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교환함으로써 생산되고 분배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그 가치의 하락에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억제하고, 가치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제한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성공정, 성자유, 성만족의 결핍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김세라, 위의 논문, 117~122쪽.) 박이은실이 지적하듯이 “가부장제도가 강제해온 이성애적 결혼제도”(68쪽) 속에서 “처의 성이 생식과 관련되어 높은 위계 속에서 보호받고 동시에 또한 철저히 통제받아 왔으며, 처에게는 성이 통제되고 처 이외의 여성들에게는 생식이 통제되면서 처의 위치가 보장되는 방식을 통해 가부장제 안에서 ‘처’와 ‘남편’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어 왔고, 이로써 가부장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69쪽) 그러나 이 거리가 ‘부당한 거래’, ‘아예 잃을 수 없는 것, 혹은 굉장한 상실 공포와 연관된 것들을 담보로 잡은 거래들’일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위 섹슈얼리티의 “위계구조의 결과로 빚어진 떡고물”(71쪽)로 환원하기에는, 처들의 성 억압과 성 기능장애통한 인격적이고 성적인 고통들,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신경증의 고통, 강제적으로 억압들에 순응하도록 직조된 성격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의 고통을 감가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고의 남근자본주의 비판은 명확하고 세밀하게 억압 메커니즘을 구분할 수 있

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의 감정과 성 경제가 자율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고정적이고 환원적인 남근자본주의로 사고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해진다. 쾌락의 충족도, 윤리적 정당함도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웃었다.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다”) 웃는 이유는 남근 자본이 증식되었고, 여성 성 경제의 종속성이 확인되었고, 아내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다.

『속어면술』의 <팔자 좋은 직책>(302쪽)에서는 한 상번 군사가 숙박업으로 먹고 사는 짧은 과부를 노린다. 자고 있는 과부의 음호에 거의 본능적으로 풀을 바른다. 과부가 일어나 음행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꾸짖는다. 화난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 재빨리 껴안고 성교를 한다. 그 뒤로 여주인이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하고, 군사는 자신의 양근에게 팔자가 좋이라며, 편한 직책인 종묘령을 내린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 쌓였던 정감을 온통 쏟아 힘차게 눌러 환애하니, 여주인 역시 흥분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늘어지면서 흐뭇해 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 군사는 자주 안채를 드나들며 잠자리를 나누니, 그 때부터 여주인은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이에 군사가 좋아서 자신의 양근을 꺼내 만져 보며 말했다. “네 팔자가 상팔자로다. 네가 관직을 얻는다면 어떤 관직이 좋겠느냐? … 내 살펴보건대, 음식으로 벼슬을 한 수문 부장과 종묘령이 가장 좋아 보이는구나. 많은 녹봉에 기름진 음식이나 먹으며 긴긴 하루를 한가롭게 놓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실로 좋은 직책이로다. 내 너에게 그 직분을 내리

---

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성 경제적 교환 관계에 놓인 모든 이들의 통합적인 동질성을 보다 확보한다. (박이은실,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낙인의 문제-성(별) 전환인들의 성노동에 대하여』,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팀, 도서출판 여이연, 2007, 66~71쪽.)

졌노라”(304-305쪽)

역시 남성의 쾌락은 서술되지 않되, 몰래 음행을 하고, 남근을 활용한 효과만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정감을 온통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여성과 달리 언제나 ‘몸’을 잘 가누며, 상대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다. 음식을 마련할 돈을 가져다주지 않고서, 꾸집한 음식을 얻는다. 후에 수문 부장과 종묘령 벼슬도 얻는다. 양근의 상팔자(과잉가치 획득)는, 남근 자본의 활용이 다른 가치(성, 권력, 음식, 감정)들을 포획해버릴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여성들, 특히 성 경제적 주체성을 더욱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이들은, 아무런 방비나 대책 없이 음행과 강간의 위협 속에 시달린다. 이야기의 초반에 여주인이 안채에만 기거하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이다. 남근 자본(성기)을 여성에게 투입함을 통해, (스스로 성적 가치를 얻으면서도), 다른 사회적 가치들까지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지극히 과잉적인 가치해석이다. 이는 결국 다중적인 소외와 착취를 야기한다.

『어면순』의 <처녀가 고른 남편감>(61쪽)에서는 여러 사회적 가치<sup>23)</sup>를 지녀, 결혼이라는 교환에서 높은 가치를 맺는 여성이, 각각 문장력, 무력, 재력, 성 능력(陽道)으로 대표되는 네 청년 중에서, 성 능력을 가진 이를 결혼의 상대로 선택한다.

곧 한 사람은 문장에 능통한 선비로서 여러 번 과거를 보아 실패한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몸집이 장대하고 무예를 익혀 사람들이 장래 훌륭한 대장감이 라고 일컫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수지 밑에 좋은 논 일천 석을 가진

23) “아주 참한 딸을 두고 있었다. 이 딸은 얼굴이 예뻐서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영리하며, 글공부를 하여 문장을 지을 줄 알았으니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61쪽)

큰 부잣집 청년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행시(行尸:죽고 사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 생활을 함)로 사방을 둘러봐도 벽밖에 없었으나 양도陽道가 강해, 일찍이 짚으로 만든 오쟁이에 돌맹이를 가득 담아 끈으로 묶어 양근에 걸고 힘을 주어 떨치니, 그 오쟁이가 머리 위까지 날려 올라가더라고 했다.(61쪽)

여성의 높은 가치는, 그녀의 결혼 경제 속에서의 선택에 의하여, 성 능력의 가치로 전이된다. 문장력, 무력, 재력의 가치는 모두 ‘위험함’의 제시에 의하여 감가상각된다. 오직 파편적 성 능력(강직도)만이, 총체적 성 능력을 대신하면서도, 아무런 위험함 없이 제시된다. 게다가 지독하게 가난하고 막 살고 있음에도, 그러한 위험은 무시된다.

어떠한 속성이나 자질이 비슷한 유사 남근들에 대한 배제도, 남근자본가치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up>24)</sup> 『속어면순』의 <주장군전> (335쪽)이 대표적이다.<sup>25)</sup> 이 이야기는 의인화 및 그를 통한 다양한 은유 체계와 인칭 전환이 두드러진다.

이성尼城 사람 맥효동(麥孝同)이 침체된 그 연못을 뚫으려고 사사료이 방략方略을 획책하고 있었으나, 주맹 장군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곧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339쪽)

24) 남근자본주의자는 유사 남근들을 활용한 쾌락을 진정한 성적 생산에 의한 가치로 규정하지 않으려할 것이다. 가치는 개별 성 경제의 맥락에서 유효함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한 남근자본은 ‘양화’이고 유사 남근은 ‘약화’로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남근자본주의자는 ‘남근자본’의 성적 쾌락의 기준적인 매개체로서의 위치(key currency)는 약화되고, 과잉 평가된 교환가치는 감가減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5) 『속어면순』의 <두 처녀의 약속>(284쪽)에서는 꿀 과자와 비교하여 가치를 상승시킨다. 꿀 과자: 눈을 뜨고 먹을 수 있는 달고 맛있는 것 < 눈조차 뜰 수 없는 남근. 물론 이는 신체에 대한 정신의 분리를 통한 가치 상승 전략도 포함한다.

맥효동은 곡물(보리 혹은 밀)을 뭉쳐 만든 수염기구로서, 모양과 강도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성 경제에 성적 가치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인적 성 경제의 자기 조절은 사사로운 방략이 되고, 남근을 의인화한 주맹 장군과의 위계 관계를 경유하여, 맥효동은 상대적 하위에 놓인다. 부끄러움은 사회적 감정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가 사회적 질서에서 낮은 가치를 가지거나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어서 사회적 자아에 의한 내면적인 억압이 실행된다. 이러한 자위 도구, 혹은 성 자본경제 하에서의 유사 남근의 활용의 부끄러움은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면순』의 <존경하는 동와 속모>(65쪽)에서의 남성 자위 도구인 동와의 사용을 조카한테 들키고 조롱받은 삼촌은 부끄러워한다. 자위는 여성을 매개로 하는 남근 자본의 증식 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근자본주의자 공동체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남근자본주의자 공동체가 유지, 증식되는 것은, 둘 이상의 포괄적 성 경제하에서 성 경제 간의 위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특정 성기의 소유를, ‘고정적인 가치의 실재’로 보는 환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의 주도권을 차별적, 모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성 경제가 다른 성 경제들을 착취하고 소외시켜야, 남근자본주의자가 원하는 정도의 교환 양상과 가치 증식이 가능하다.

### 3. 불가능한 쾌락의 생산 및 분배의 전도

이 장에서의 이야기 분석은 다음의 네 명제에 기초한다. 이 명제들에 관련한 행위 주체들은, 단순히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들을 넘어, 성적 가치

의 생산 과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실제로 상상하고, 믿고, 행위하며, 그에 따라 불평등한 위계와 모순적인 담론을 재생산한다.

1. 성적 가치의 생산은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 및 성적 노동<sup>26)</sup>이 될 수 있다.
2. 남근 자본주의는 다른 성 경제의 성적 가치 생산을 스스로의 남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성 경제 및 결혼 경제를 그 목적에 맞게 제어하려 한다.
3. 2에 따라 남근 자본주의는 남근의 실제 사용 가치를 넘어선 잉여 가치의 생산 혹은 쾌락의 표현과 그 형식을 성 생활과 관련된 전반에서 규정하고 강제한다.

26) 이러한 입장은 정고미라의 페미니즘적 노동관에서 빌려오되, 본고의 입장을 적용하여 확장했다. 포괄적 성 경제들에서의 남근 자본 작용을 논하는 것은, 충동적이고, 우연적이고, 비밀스러운 것들로 여겨지는 영역들에 있는 구조화된 강제들을 가시화한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는데,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무상의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편견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22쪽) 때문이다. “편견들은 여성 역할이 포함하는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행위’로만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이 실제로 수행하는 많은 노력들을 쉽게 ‘비노동’으로 치부하게 하였기”(23쪽) 때문인 것이다. 남근자본주의자들은, 실재를 고정된 상징들로 대체하고 교환하며, 생산 수단 및 주도권을 한정하고, 누군가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황을 강제하고, 그 환상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성적 가치들을 얻기 위한 방식을 규정한다. 그러면 감정 노동과 마찬가지로 성에 관련된 노력들은 충분히 노동이 될 수 있다. 정고미라는 교환 가치화된 감정 노동 개념을 “일상 생활 속에서의 감정 노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환 가치화된 노동으로 한정된 노동 개념을 ‘사회적 가치’화된 노동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25쪽)고 역설한다. 본고는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성 경제가 결혼 제도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게다가 성 부정, 성 억압도 자기 정신의 보존, 정체성 보존을 위한 극심한 감정 및 정신노동을 강제한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강제된 성적 노력들을 해방하고, 정당하고 유효한 성적 가치들이 자발적 행위들에서 얻어질 수 있도록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고미라,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엮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22~25쪽.)

4. 남근 자본가의 위치 확보, 책임 회피, 과잉 잉여가치 착취를 위해, 각각의 성 경제의 가치 생산 과정은 은폐되거나 왜곡된다.

이러한 남근자본주의적 성교 과정은 다양하다. 우선 남근자본주의자 공동체에서의 규정에 의해 여성의 대상화 및 가치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성 경제와의 성교를 통해, 그 여성을 가진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지배적 소유를 시도함으로써, 매개적으로 전이되는 교환가치를 획득했다고 여긴다. 다음으로 임의의 여성과의 성교, 다수의 여성과의 성교를 통해, 여성의 성 경제와의 결합에 부여된 보다 고정적인 교환가치의 반복적 축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교 과정에서, 남근 신화에 의해 매개되어 가능해지는 여성의 과잉 쾌락, 혹은 불가능한 쾌락의 표현을 통하는 잉여가치의 획득, 즉 남근자본증식이 있다.

한 편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잉여적이거나 모순적인 쾌락의 표현을 생산해야하는 착취당하는 성 경제가 있는 반면에, 한 편에는 결국 과도한 남근 가치에 실제적인 가치들이 소거당한 남근 자본가의 성 경제가 있다.<sup>27)</sup> 육담에 ‘나타난 남성 쾌락의 부재함’은 다양한 목적이나 기능에

27)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은 우리가 사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하는 부담을 점점 더 줄여주는 한편, 동시에 우리가 사물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한없이 쉽게 만들어준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방향들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순수한 상호 분리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실질적 내용들은 점점 더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이 되는 반면, 물화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점점 더 인격적이 되고 더욱더 확고한 자아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826쪽) 돈과 교환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돈이라는 상징으로 환원되고, 돈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완전히 인격적이고 토대적 자아로 인식되어 그것에 돈을 개입시키는 것은 철저히 분리-혐오된다. 또한 돈이 실질적인 사물들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환을 위한, 상징적 가치의 수량화를 위해, 동질성을 확보한 물체임을 넘어, 생활양식의 핵심이자, 철저히 수단에서 벗어나 목적이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 그것이 원래부터 객관적이고 당연한 목적인 것처럼 전도가 일어난다. 돈은 실제적인 것들을 위한 모든 노력을 대체하고, 따라서 각 개인이 특정 영역에 보다 돈으로

적합한 은폐, 억압, 왜곡, 무관심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남근자본주의에 의한 불감증 자체일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남근 자본가에게는 총체적인 성 만족은 파괴되고, 남근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성 노동만 남는다. 그는 남근 자본을 증식할만한 대상만을 찾아다니며, 그것에 흥분하고, 성교가 시작되면 곧 사정하며, 상대가 쾌락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성교를 일방

---

대체 불가능한 정신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성 경제도 이와 유사하다. 이 두 경제(일반 경제와 성 경제)는, 그 속에서의 실제적인 물질과 가치의 상호적 흐름에 대해, 의미 경제가 작동하여, 상징이 실제들을 대체하고, 활용된다는 심층적인 공통점을 갖는다(그리고 본고는 철저히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해서만 짐멜을 참고하고 인용한 것이다). 즉, 실질적인 생체적 자극-긴장과 해소-이완의 완만한 증폭적 순환과 그 순환을 주기적으로 적합하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신이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들에 대한 방향성과 강도들이 탄력적이고 복합적이게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체적 현상을 생산하는 행위(즉, 성 경제적 행위), 그리고 그 생체적 행위에 대한 여러 범주의 자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투여, 타자의 자극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는 증여적 교환 등(친밀한 유대 관계를 효율적으로 형성하는)은,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지적인 요소를 교환의 핵심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된 가치 체계와 의미들에 의하여 환원하고 고정하는 것에 의해 붕괴한다. 게다가 그것은 차별적으로, 특정한 담론에 의해, 극단적인 국지화를 거친 것이기에 더욱 강력히 상호 호혜적인 성 경제적 생산 과정들을 붕괴시킨다. 그리고 남근 자본 증식에 집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성을 객체화하는 것을 함축하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그리고 자발적인 다른 성 경제 주체를 마주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마치 성적 쾌락이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남근 삽입으로 쉽게 생산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대상화된 여성은 오로지 남근 자본 증식과 관련하여 선택된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들로부터 역으로 도피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성적인 것은 ‘강제적 남근 삽입’ 밖으로 밀려난다. 그 순간적 행위의 전후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느낌, 자신의 몸들로부터 빠르게 회피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영역들에 성적인 것이 관련되는 것을 철저히 분리-혐오한다. 권위적, 성 부정적 사회는 다른 모든 것의 적극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성 경제에는 재생산이라는 작위적인 목적의 성취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시키기 위하여, 주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성 억압하여 길들이고, 사회 및 가족 구조 존속을 위해 정해지고 합리화된 삶의 경로(입신양명)에 최적화되기를 강제한다. 결국 성 경제를 가진 모든 이의 고통이 각각 다른 정도로 유발된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도서출판 길, 2013, 826쪽.)

적으로 시작하고 끝내며, 총체적인 불감증에 시달린다. 이제 남근 자본을 증식할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의 성 능력은 작동하지 않는 실제적인 성 불구에 가깝게 된다. 때문에 여성의 ‘불가능한 쾌락’의 표현과 남성 쾌락의 부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근 자본가의 성 자본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의 남근자본주의적 가치 평가가 지나치게 상승, 혹은 감소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실제적인 현상들과 그것들의 유효한 가치들은 지나치게 과잉적인 교환 가치로 대체되거나, 혹은 거의 아무런 교환 가치도 얻지 못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든 그는 인격적이고 평등한 성 관계를 맺는 일, 주체적인 상대와의 지속적인 성 만족을 얻는 일에 실패하며, 결국 포괄적인 상호 호혜적 성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들이 남근자본주의자의 환상이 발원하게 하는 기제들이며, 따라서 그러한 환상들을 충족시키는 야담에서, 여성의 불가능한 쾌락이 존재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먼저 『어면순』의 <기어이 실패한 잠자리>(115쪽)에 드러나는 불감증의 징후를 볼 수 있다.

송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는데, 조운朝雲이라는 나이 든 창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에 인연을 맺어 보려고 백방으로 시도했지만, 기생이 강하게 거절하는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선비는 무작정 기생의 방으로 들어가 몸을 던치니, 조운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는 연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순히 옷을 벗고 동침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송씨는 그토록 애를 태우던 기생이 막상 순순히 몸을 내주자, 긴장이 풀어지면서 양근이 바짝 올라붙더니 어린 아이들 고추처럼 오므라들어, 도무지 힘을 발휘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아무리 양근을 세워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잠자리에 실패하고… (115쪽)

사실상 강하게 거절하는 것은 극도의 남근자본주의자에게 아무런 윤리적, 사회적 의미가 없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거절은 더 강한 쾌락을 생산해주는 잠시 지연된 동의일 뿐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 경제는 남근을 활용한 성교 과정에 의해, 미리 규정된 과잉 쾌락을 생산할 것이라는 신화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근자본주의자는 강한 거절을 하는 타자의 성 경제가, 자신의 남근에 의해 결국 과잉 쾌락을 느낄 것이라 상상하는 것에서 남근자본의 과잉증식을 경험한다. 이미 성교를 하기 전부터, 강간 시도 자체에 성적 긴장을 느낀다. 그 거절과 과잉 쾌락 간의 모순적인 대체를 통한 가치증식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과도한 남근자본주의자는 오로지 남근자본의 증식과정에 대한 예측, 즉 그것에 집중된 이미지와 기대에 의해서만 받기한다. 그리하여 그는 상대의 동의에 의한 순조로운 호혜적 성교에서 더 이상 흥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실제적인 가치들과의 대면에서는, 원하는 이미지가 깨

28) 해석은 그 자체로 인지적인 가치를 생산한다. 필자는 초월적인 해석(보통 주술이나 신화)이 갖는 높은 인지적인 가치의 생산 과정 및 원리를 논한 바 있다. 인지적인 제한들(보통 금기 및 현실의 제약들, 여기서는 상대의 거절)에 의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강력한 욕망이 계속해서 불가능한 해석들을 추동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호(보통은 문화적으로 제공되지만, 사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를 통하여, 축적되어가는 불가능한 해석들이 그것을 매개로 연결되면서 더 강력한 연결, 더 많은 인지적 가치를 얻는 초월적인 해석이 일어난다.

가령 상대의 다양한 형식의 거절들을, 남근자본주의 신화가 매개하여 남근자본가가 원하는 해석이 되도록 통합할 수 있다; 자기도 좋아하면서 일부러 애태우고 있다; 부끄러워서 차갑게 거절한다; 아직 나랑 안해봐서 잘 모른다; 결국에 어떻게든 성교를 하고나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등의 여러 초월적 해석(인지부조화)이 일어날 수 있다. (Ji Hwan Lee, *Integration mechanism and Transcendental semiosis, Semiotica*, issue 225, 2018, 참고.)

설화 분석에 더욱 관련되어 확장되고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발전된 기호학적 논의는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어지고, 대상과의 결합에 기대되는 잉여가치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발기에 필요한 가치해석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의 가치평가체계가 강력하게 전도顛倒적일수록, 유효가치생산을 위한 자기 제어는 실패한다.

『속어면순』의 <아내 사랑하는 호장>(306쪽)에서는 송언신의 수많은 여성의 강간을 통한 고정적 교환 가치의 반복적인 축적이 드러난다. 송언신은 우연하게 호장戶長의 집에 묵게 되고, 시집갈 나이가 못된 호장의 딸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고, 호장의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퍼진다. 이후 호장과 어떤 이의 싸움이 우연히 일어난다. “네 행실이 이러니까, 네 아내가 관찰사와 순순히 잠자리를 하게 된 거지. 못나고 더러운 것들 같으니라고”라며 욕하는 이에게 호장은 “내 처가 예쁘고 고우니까 관찰사가 좋아해 접근한 거란다”(308쪽)라고 대응한다.

송언신(宋言愼:1542~1612)은 판서를 지낸 사람이나 여색을 밝혀 스스로 말하기를, “내 평생 접한 여성은 1천명에 이를 것이다.”라며 호언하고 다녔다. 이에 비록 병든 여인이나 혹은 달린 여자라도 치마만 들렀으면 끌어안고 잠자리를 하니, 물건을 팔러 다니는 아낙네나 나물 캐는 부인들이 그가 사는 마을에는 발 들여놓기를 꺼려했다 … 누워있는 여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덮치니, 호장 부인은 도적이 든 줄 알고 소리를 지르려 했다. 이 때 관찰사는 비로소 호장 부인인 것을 알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조용히 말했다. “부인, 나는 도적이 아니라 관찰사이올시다” 이 말에 부인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는데 … (306-307쪽)

1천명을 강간하고 제재가 없으며, 심지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랑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호언할 수 있도록 미리 규정된 가치 체계에 기반한다.<sup>29)</sup> 이 가치 체계에서 각각의 여성들은 남근

29) 이러한 가치체계가 육담들 내에서 여러 연결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범죄 계약 및 강

자본주의에서 부과한 여성의 최소 고정가치로서, 숫자로 환원되어 가치를 축적한다. 한 개인의 총체적 성 경제와 인격은, ‘치마’로 대표되는 성적 가치로 환원된다. 이러한 가치축적이 남근자본주의자 공동체 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기에 자랑을 할 수 있다. 강간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으면, 남근 자본주의에서는 ‘순순히 잠자리를 한 것’, 그리고 당한 사람은 ‘못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처럼 모순을 중재하는 남근 신화에 의해 논리 체계와 성적가치 생산과정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는 남근신화에 의해, 다른 성 경제를 자신의 남근가치증식을 위해 착취하는 강제적 성교를, 호혜적 성 경제로 뒤바뀌 인식하는 인지부조화<sup>30)</sup>다.

이제 강제적 성교에 대한 여성의 쾌락 및 과잉 쾌락 상황에서 남성 쾌

---

간, 권력과 강간, 여색, 난봉, 매춘 중독 등이 솔직함(비위선적), 기지, 영리, 장난, 강함, 자신감, 호방함, 의협함, 용감함, 취미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다.

- 30) 김세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강간이나 겁탈을 당하는 여성의 입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호장의 말을 통해 이것조차 시혜 수혜의 관점으로 수렴된다. 게다가 호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상관에게 겁간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저런 아버지와 남편, 손뼉을 치고 웃는 자들을 바라보며 딸과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125쪽) 본고는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과 공감적 추정들과 함께하되, 위와 같이 체계화하고, 세밀한 추정을 더했다는 의의가 있다. 당사자들의 절망감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함께, 타당한 판단과 발언이 인지부조화를 겪는 타자에게 인정받을 수 없거나 왜곡되는 것에도 관련된다. 이때 그들의 논리적 판단은 감정적 평가로, 그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주관적인 착각이나 오류, 혹은 다른 목적에 기반하여 왜곡된 것이 된다. 인지부조화적인 판단들에 의해, 적절한 인지를 한 피해자들이 역으로 인지부조화인 것으로 평가되는 극도의 모순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김세라의 다음의 언급은 다시 고찰되어야 한다. “그저 요즘의 포르노그래피에 묘사된 남성판타지 혹은 여성혐오라 공공연하게 불리는 여성의 모습만 반복, 확대, 재생산된다. 결국 위 일화들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침묵하거나, 아니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쳐있는 존재들이다.”(129쪽) 오히려 그러한 왜곡된 모습을 원하고 믿는 남근자본가들이 위협적이고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인척 해야 했고, 침묵에 있어야 맞지 않았고, 미치지 않고서는 남근자본가의 인지부조화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김세라, 위의 논문, 122~129쪽.

락의 부재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분석한다. (가) 여성을 인지하고 갑자기 남근을 삽입하기, (나) 계락 및 협박을 통해 강간하기 등을 논의한다.

(가)에는 『어먼순』의 <그 맛이 어찌 손가락과 같을까>(127쪽)와 특히 <마 캐는 여인의 상반된 반응>(83쪽)이 대표적이다. 이 두 이야기는 전 반부가 거의 같다. 허리를 구부린 여성의 성기를 발견하고, 지나가던 소년이 갑자기 남근을 삽입한다. 전자는 여성이 화가 나서 쫓아오자 손가락이라고 속이지만, 그를 반박하는 말에 의하여, 잉여적인 성적 가치의 표현, 즉 남근 자본 증식이 확인된다.<sup>31)</sup> 후자는 보다 분명하다.

소년의 양근이 여인의 옥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박히자, 깜짝 놀란 여인은 허리가 잡혀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한 뒤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어떤 도적놈이 나를 죽이네, 나를 죽여!” 이 때 소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맹렬한 속도로 진퇴 운동을 전개하니, 여인은 감흥이 고조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 놈 도적놈아! 내 캐놓은 마를 다 먹어라, 다 먹어!” 이렇게 한바탕 작업을 마친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84쪽)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급격한 삽입에 의한 고통과,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남근 활용의 강도’를 매개로, 엄청난 부정적 가치(-)가 양의 가치(+)로 모순적으로 전환된다. 매개체로서 남근은 이 과정에서 생산된 초월적인 가치를 전이받는다. 여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남성의 행위에 대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감흥’이라는 과잉 성적 가치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질의 제공까지 부가된다. 이는 남근자본주의적 욕망을 드러내는 환상이고, 따

31) “그게 만일 엄지 손가락이었다면, 어찌하여 그 쪽 번두리가 아직도 이리 훈훈하고 달 짝지근한 맛이 날 수 있단 말이나? 그것이 어찌 손가락 맛과 같더란 말이나?”(128쪽)

라서 특정한 수용자의 남근자본을 이러한 이미지 활용 등을 통해 증식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년에게는 어떠한 쾌락도 나타나지 않으며, 행위가 끝나면 그는 사라진다. 남근자본주의적 수용자는 소년의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와 배려를 통해 얻는 매개적인 성적 가치의 증폭 과정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남근의 삽입 과정과, 여성의 모순적이고 과잉적인 쾌락 표현을 통한, 남근 자본의 증식이다. 그래서 소년은 이야기 속의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는 남근 자본 증식의 도구, 즉 남근자본을 활용하는 행위를 생산하는 주도적 대행자 중의 하나이다.<sup>32)</sup> 이러한 이야기에서 여성성은 극단적 대상화에 기초하는 고정적인 최소 교환가치이다. 그리고 육담의 환상 속에서 여성은 남근자본을 증식시키는 여성 쾌락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그것이 여성에 의한 것임을 보증하는 성격을 지닌, 매개적 대행자 중의 하나이다.<sup>33)</sup>

32) 문헌 육담을 이해하는 문식자의 안전한 수용 모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중, 하인, 소년 등의 체력적으로 우월한 대행자를 매개로하여, 남근자본주의적인 환상의 합리화 및 책임의 전가를 얻는다. 물입을 통한 자본증식이 끝난 뒤에는, 하위계층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비판하며, 하위계층남성을 비열한 침탈자로, 당한 여성은 원래 음탕한 존재로 비하한다. 이는 계층적 안정성을 동반하는 윤리적 권위를 제공한다.

33) 황소령(2012)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여자는 처음에 광생을 욕하다가 나중에 흥이 나서 즐기게 되었다. 즉 소화 중에 여성은 처음에 성행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척할 뿐이다 … 이처럼 사회에서는 하층여성의 성욕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고 남성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인식 하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알 수는 없으나, 활자에까지 소개된 이야기라면 죽히 그 현실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158~159쪽) “성소화의 주인공은 모두 성적 욕망이 크다. 하층 여성이 남과 간통하거나 겁난 당하고 나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 이들 성소화의 묘사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170쪽) 이러한 황소령의 논의의 증거는 각주 25에서 정병설(단행본, 『조선의 음담패설: 기이재상담 읽기』, 예맥, 2010, 128쪽, 132쪽)의 언급(황소령은 조선 전기 하층민에게 유교 이념이 큰 영향이 없었다라며 요약했다)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이재상담』은 조선 후기의 책이다. 우선 필자는 유교 이념이나 열질 이념이 파고들지 않은 것과, 강간당해도 문

(나)의 경우도 무척이나 많다. 대체로 위에서 언급했던 『속어면순』의 <아내 사랑하는 호장>의 송언신, <상번 군사의 계략>(292쪽), <업혀온 중이 어딜 가나>(296쪽), <십격 선생의 기술>(310쪽) 등과 같다. 대체로 송언신처럼 대놓고 하지는 않고, 숨어들어가거나 소문을 내겠다는 험박 등으로 목적을 성취한다. 이러한 남근자본증식은 위에서 분석한 바 있다.

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논리 차원에서 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 열절은 성 ‘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것이고, 강간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신체와 성적 권리의 침탈이고, 성적 폭력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해 성폭력자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 완전히 대상으로 소비되고, 모욕되고, 상처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소령의 논의는 유교 이념이 없거나 열절의식이 없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강간당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성을 인정하자는 말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성이 개방되고, 긍정되어도, 강간은 다른 차원의 논리적 범주로 보인다. 오히려 강간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로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성을 기피하게 한다. (황소령, 『어면순』 소고 - 성소화를 통한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도남학보』 24, 도남학회, 2012, 158~159쪽, 170쪽.) 그리고 정병설이 『기이재상담』에 대해 학술적으로 고찰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정병설의 확실한 입장에 대해서는 역저보다 논문을 고찰해야한다.) 조선 후기에 “하층 여성은 ‘소대남편’, 하층 남성은 ‘화처’로 대표되는 일종의 중복혼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었다.”(198쪽) 이러한 “하층의 개방적 혼속은 상층 남성의 축첩 등으로 인해 생긴 성적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하층민의 성적 자유는 자신의 삶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199쪽) 아울러 정병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하지만 성적 개방성 속에 하층 여성에게 가해진 모진 폭력들을 생각하면, 상층 여성에 가해진 성적 억압은 어떤 면에서는 보호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194쪽), “『기이재상담』 29번 흥봉환의 첩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명령을 받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한 하층 여성에게 성적 개방성은 세상에서 버려진 증거일 뿐이다.”(195쪽) 정병설은 “하층 여성의 굴욕감은 도저히 씻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주 기생 명선의 『기생명선지술가』(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2007)를 보면 “명선이 어린 나이에 겪은 짐승과 같은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굴욕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하층 여성의 “성을 유린당한”(194쪽) 고통을 이야기하는 정병설의 논의가, 황소령이 주장하는 ‘전기 하층 여성은 열절 개념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성소화에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강간당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의 현실성의 인정가능성을 높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정병설, 『조선 후기 성의 실상과 배경- 『기이재상담』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0, 194~199쪽.)

(내)는 과잉적인 성적 쾌락의 표현과 결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가장 극단적이고 왜곡적인 남근자본증식을 일으킨다.

『속어면순』의 <세 자매의 확인>(231쪽)에서는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남근자본주의의 신화가 초점이다. 위의 <마 캐는 여인의 상반된 반응>에 서의 소년처럼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모순적인 경우에는, 이 이야기에서처럼 남성의 허위노동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이는 이중적인 가치 생산 및 배분의 왜곡이다. 성 자본 경제에서 성교가 일어나면, 남근 에 대한 종속과 남성의 허위노동이 나타난다.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세 자매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 세 자매는 한 소년의 계략에 속아 그를 병어리인 줄 알고 집에 끌어들여, 남근을 확인 한다. 소년은 다음과 같이 협박한다. “내가 나가서 이 소문을 낸다면, 남자들은 영영 시집도 못 가고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말만 잘 듣는다면 그런 소문은 내지 않을 거요. 그러니 다만 궁금하게 여겼던 남녀 교정의 맛이냐 경험해 보구려” 협박을 당했음에도, 세 자매가 “그 맛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거나 “너무나 좋아하며 자진 해서 응했다”고 서술되고 있다.(235쪽) 이를 통해, 2장에서의 타인의 이야기(풍문), 여종의 강한 이야기와 담론, 그 담론이 다시 확인 과정으로서의 이야기(전체적으로 다시 사건부)에서 강화된다.

그러나 이 성교에는, 위처럼 세 자매의 쾌락은 서술되지만 소년의 쾌락은 소거되어 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아침에 시작된 일이 어느새 낮과 밤을 지나 새벽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증노동을 한 셈이었다. 이에 소년이 일어나 방문을 나서는데 기운이 없어 비틀거리니...”(235쪽) 성 긍정적인 성 경제의 상호활성화에서는 쾌락과 성 행위가 상호적인 생산 작용이다. 그런데 극단적인 남근자본주의는 여성에게는 쾌락이 생산된 것으로, 남성은 노동을 한 것으로 이중적이고 왜곡적인 분배

를 한다. 이는 이중적인 착취, 극단적인 착취로 이어진다. ‘성 자본 경제’에서 ‘성 자본의 증식’은 실제적인 쾌락의 생산 과정과는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의 요구(강제적 채무)와 ‘남근’의 가치의 강화(자발적 종속)를 상호적으로 작동시킨다. 따라서 여성은 ‘종속’에서 스스로 쾌락을 생산해서 제공해야 하며, ‘채무’에서 ‘남근’이 제공한 쾌락에 대한 값을 갚아야 한다. 평등한 의존과 호혜는, 일방적인 ‘종속’과 ‘채무’가 된다. 이것이 여종의 성교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협박에 의한 세 자매의 강제적인 성교에서도 성립하고 있다.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강제로 쾌락의 매개적 생산 수단으로서 착취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쾌락을 지우고, 여성의 쾌락을 생산하면서 소거된다. 오히려 여성은 강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과적인 쾌락을 얻은 것이 되고, 남근 자본가 스스로는 성 노동을 제공한 것이 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역전적인 논리 왜곡은 남근자본의 과잉가치, 남근자본주의의 신화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 신화의 중재와 치환은 강제적인 성적 착취를 착취자의 허위 노동으로 치환하고, 착취자의 윤리적 채무를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으로 전가한다. 부당한 행위에 의한 윤리적 갈등은 봉합되어 버린다. 여종의 성교에서의 종속과 채무의 담론이 세 자매의 강제적 성교에서의 종속과 채무 담론으로, 이야기의 증폭적 반복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논평자(성여학)는 이를 강하게 믿는 논평을 서술한다. “심하도다. 어찌 이다지도 남녀 음양의 상호 감응이 빠르더냐! …몸을 더럽혔으니 참으로 비루하다…예기에서 가장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남녀의 분별이니, 옛날 성현들이 경계하고 삼가도록 규정해 놓은 그것이 어찌 우연으로 한 것이겠느냐”(236쪽) 전체 사건부에 대한 메타 담론으로서 논평은, 이러한 이야기와 담론이 의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협박은 지워내고, 피해자가 사라진다. 남근자본주의를 공고히 하며, 순환적인 리얼리티 증폭 속에

서, 그 효과에 따르는 혐오를 강화하는 담론을 생산한다. 즉 논평 속 사유 체계가 이러한 육담을 흥미롭게 인식하고 만들어가며, 육담이 다시 논평이 생기게 하고, 이에 적합한 남근자본주의의 귀납적 합리화를 유도한다.<sup>34)</sup>

『속어면순』의 <다시 방귀 뀌고 싶어 하는 여인>(297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중이 길 가던 여인에게 뀌지도 않은 방귀를 뀌었다고 시비를 건 뒤, 숲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여인이 오히려 다시 성교를 원하게 되는 남근자본증식이 일어난다.

한 스님이 멀리 여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 근처에서 저만치 앞서 가는 여인을 보았다. 이에 가까이 따라가서 슬쩍 엿보니 예쁘고 참하게 생겨, 친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었다 … 숲속으로 유인해 역지로 옷을 벗기고 호합하여 강렬하게 정감을 고조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함께 돌아오는데, 뒤를 따라오던 여인이 멈춰 서서 스님을 부르며 말했다. “스님, 내 다시 방귀를 뀌고 싶는데 그래도 될까요?” 이에 스님은 크게 웃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 버리더라. (297-298쪽)

34) 논평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논평부와 이야기부의 상호 관계 및 총체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증한 류정일의 입장과 함께 한다. “… 속어면순의 편찬자는 사회적·실천적 지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레고리적 관계는 이야기부의 구성 요소와 논평부의 구성 요소사이, 이야기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상관물에 대한 고찰은 소화를 통해 편찬자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화집을 편찬하는 편찬자의 이데올로기 역시 이렇게 이야기부와 논평부에서 만들어지는 의미 층위들을 확장하여 비교함으로써 연구 가능하다.”(438쪽) 이는 결국 논평부와 이야기부를 심층적으로 담론 분석하고, 그 담론이 서로에게 갖는 기능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그 총체의 의도나 효과를 추론하는 것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로서 본고는 알레고리적 관계를 넘어서, 이야기와 논평이, 특정한 해석 습관에 대하여 상보적, 총체적인 합리성 증폭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남근자본주의적 성 경제관의 모델을 텍스트 중심으로 유도해냈다. (류정일, 『문헌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438쪽.)

일단 남근을 활용하기만 하면, 여성에게 성적 쾌락이 강하게 생산될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이 나타난다. 강간이 여성에게 성적 가치의 추구를 만들 어내고 있으며, 역시나 중의 쾌락은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다. 남근자본주 의자의 목적은, 남근자본에 의해 여성의 성 경제에서 성적 가치가 초월적 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한 뒤, 그것이 자신의 남근자본의 가치라고 믿는, 성 적 가치의 착취과정이다. 그 불합리함은 보통 하나의 문장으로, 심지어 위 에서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해결된다. ‘억지로 옷을 벗기고,’ ‘강렬하게 정감을 고조시켜 주는’이 초월적으로 통합된다. 증식과정에서는 일단 강 간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에만 처하면 어떠한 노력도 설득도 필요하지 않 다고 여긴다. 그냥 하면, 여성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불가능한 성 적 가치 생산은 남근 자본의 증식을 위한 것이다. 어떠한 여인이든 그러 한 증식 과정의 매개체로 격하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육담에서 ‘예쁘고 참 한’은 대상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용사로서 설정된 것이다. 이처럼 대상적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여러 조건들에 의하여 성적 가치생산의 불가능성 이 있는 여인은, 그 대상적 가치 혹은 불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남근자본 증식에 도움이 된다. 그 환상 속에서 불가능한 만큼, 자신의 남근이 역시 그 불가능성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바란다. 그는 가치 를 얻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떠나는 자신의 당당한 모습 을 바란다. 남근자본주의자는 남근자본의 증식이 만족스럽다. 남근자본에 대한 여성의 종속에, 남근 신화의 매개를 통한 태도의 뒤바뀜에 만족한다.

『속어면순』의 <주인과 여종 모두 당하네>(288쪽)에서는 두 여인이 아 예 쾌락에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나타난다. 과부와 여종이 농사를 짓 기 위해 이웃에 소를 빌리려하지만, 실패한다. 결국 어떻게 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할아버에게 소를 빌리게 되고 만다. 여종이 강제적인 매춘을 당하 지만, 성교 중에 ‘아롱이 어롱이’라는 말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

겨, 결국 소를 빌리지 못한다. 부인도 매춘을 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를 빌리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 마침내 급박하게 몰아쳐 누르니, 부인은 더 이상 긴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만 정신을 잃고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롱, 아롱’ 하는 말을 연발하다가, 끝내는 역시 ‘알 알 알 알’ 하는 외마디 소리만 중얼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작업이 다 끝났을 때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응축되었던 감정이 확 터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에 한바탕 일을 마친 홀아버는 옷을 입으면서 말했다. “부인 역시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알 알 알’로 끝이 났으니, 소를 빌려 줄 수 없다오.” 이러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291쪽)

부인은 이웃집 홀아버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알아서,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를 빌리려 하지만 실패한다. 소를 빌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성 둘이서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 생명을 포함하는 치명적인 일반 경제적 위기에 의해 성 경제가 지배된다. 남근자본주의가 삶에 관련된 일반 경제의 매개를 통해 소의 일반 경제적 가치를 성적 가치로 교환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성 경제적 행위들은 남근자본주의와 일반 경제적 위기에 의해 성 노동으로 강제적으로 전환된다.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그만큼 부인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sup>35)</sup> 매춘을 했는데, 상대가

35) 이러한 지점까지 고려하면, 각주 20에서 지적했듯이, 김세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성 생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태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논의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소와 여성의 육체가 거래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정하고 대등하게’ 교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소급된다.”(128쪽) 이미 걸으로도 정당한 거래가 아니며, 회피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 성교는 성 경제의 여건 및 주변 상황, 담론 체계, 각 성 경제 주체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여종을 시키는 여주인이라는 여성간의 위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고, 더욱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철저히 불공정하다

쾌락을 얻기를 바란다. 그 쾌락은 자신의 남근자본 증식을 위한 것이므로, 여성이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 자기제어불능으로 재현되는 과잉쾌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자극들은 오히려 신체와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아가 분열시키는 여러 주요 명제들의 충돌을 강력하게 할 뿐이다. 신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적절히 통합되어 있던 사회적이고 자존적인 자기 인식들은 분리된다.

그리고 역시나 남성의 쾌락은 서술되지 않는다. 성교를 마치면, 끝이다. 어떤 윤리적 경제도 붕괴한다. 이 눈물은 성 억압적인 사회 구조와 성 경제를 착취하는 남근자본주의와 일반 경제의 결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 여성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들을 ‘응축’해서 보여준다. 받아야 하는 정당한 가치들은 부당한 모순을 봉합하는 남근자본 신화에 의해 부정되고, 착취된다. 다시 소를 얻어 살아남기 위해, 부인과 여종의 성 경제가 착취될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에 따라, 남근자본주의적인 육담 형식은 여러 해석가능성과는 별개로 다분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육담 형식 중의 일부와, 사고는 다른 매체와 장르, 그리고 과거와 현실들에 대한 판단에서 재인될 수 있다.<sup>36)</sup>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차적인 서사적 판단들에서 이러한 사고는 작

---

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세라(2016), 위의 논문, 128~130쪽.)

36) 김민영이 박사학위논문 2장(육담의 사적 전개)에서 강간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삼국사기』, 『삼국유사』부터 통시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기한 문제의식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간과 무책임함을 가진 남성성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통시적 연결성은, 극심한 남근자본주의의 복합적인 가치 체계의 모순성과 그것이 야기하는 고통과 불

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 곤궁들과, 담론적인 성 억압들은 활발히 성 경제가 작동하는 성적 주체들에게 상호 호혜적 성 경험을 부족하게 한다. 따라서 해석적 유연함의 보충도 부족해진다. 이러한 논리 체계의 왜곡은 철저히 젠더 담론의 문제다. 그리고 성 생활에 관련한 사회경제적 조건들 및 성 자본 경제적인 질서에 포획된 성 경험의 수행들과 긴밀히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유 형식이다.

이 논의의 결합은 메타언어를 많이 활용한 점, 주장들의 총합이 텍스트로 증명할 수 있는 선을 넘는다는 것에 있다. 또한 문헌 육담들의 여러 해석 가능성들, 즉, 남근자본에 대한 풍자, 정치적 저항성, 웃음, 결혼 제도의 허약함, 성 긍정과 성 해방, 텍스트 생산과정의 역동성<sup>37)</sup> 등의 여러 가능성들의 논의는 유보되었다.<sup>38)</sup> 게다가 본고가 사용한 남근적 자본·자본

---

감중, 통칭하여 해모수 콤플렉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육담에 나타난 성 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7) 임완혁은 『어면순』의 창작 배경 및 송세림의 정신에 대한 사적 이해를 시도한다. 그는 “기저에는 다양한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와 민간의 풍속과 삶을 사대부의 삶 속에 포용하려는 의식의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172쪽)고 주장한다. 필자는 더 나아가 『어면순』이 다양한 사물의 가치론과 행위 주체들의 심리와 행위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정교한 의미 조직망을 생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상당히 양가적인 해석 가능성들과 성 부정과 성 억압의 폐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성 긍정과 성 해방들이 얽혀 있다. 물론 특정한 성적 주체가 주도권을 박탈당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성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책임론 및 피해와 가해, 노동과 착취의 논리적 관계를 전도, 왜곡할 수 있기에 더 문제적일 수 있다. (임완혁, 『송세림론-『어면순』의 창작배경에 대한 일고』,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학회, 2006, 172쪽.)

38) 본고는 『어면순』에서 남근자본주의로 비평했을 때의 심층적 일관성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분석했고, 어떤 이야기들에서는 윤석산이 제시한 사회적 의미들이 우세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이들 이야기의 대부분은 양반 사대부 중심, 또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 또는 비판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 사회가 지니고 있는 허상을 벗기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에 의하여 야기惹起되고 있는 실재와 어긋나는 명분에 대한 비판의 한 모습이라 하겠다.”(424쪽) 그러나 특정한 이야기들의 경우에는 표층에서 그렇게 보일 때에도, 심층적인 성적 가치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남근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수용 모델

가·자본주의·자본주의자라는 용어들은, 엄밀히 말해서, 특정한 의미 작용 및 성 경제 작용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혹은 모델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실천적으로 재구성한 메타언어적 일관성을 통해, ‘남근자본증식’을 경험시키고 당연시하는 해석 습관들에 신속히 포섭되는 것을 지연하고 이탈할 수 있다. ‘남근자본주의’가 유발하는 그 모든 폭력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의 성 생활과 일반 생활의 자유, 안전, 평등, 행복 등과 깊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연과 이탈의 방법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의 방법들은 무의식, 의식의 겉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 했다. 그에 더하거나, 그를 넘어서, 성 경제와 관련한 메타언어 및 실천들을 기반으로, 암묵적인 전제들과 그것들에 관련된 기호들의 도상적 통합체로서의 하위 의식을 추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총체적으로 의미 작용(느낌, 행위, 자세, 해석, 태도, 믿음, 주의)들을 조절하여, 전반적인 연결 양상, 즉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유효한 경로들 중의 단 하나만이라도 어떻게든 접근해야하며, 찾아낸 지엽적인 경로들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호들의 연결고리의 종단항들에 최대한 접근해, 그것들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무정형의 전기호적 의미들을 끌어내려면, 먼저 비가시적으로 작동하며 숨어있는 기호들의 체계에 접근해야 한다. 그 접근은 숨은 기호 체계에 연결된 가시적인 기호들의 작용에 대하여, 그 기호들의 왜곡된 가시적 연결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순을 중재하는 해석 습관들을, 가추법적으로 추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고의 작업은 그 해석

---

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웃음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긍정적일 수는 없음을 주장한다. (윤석산, 『어면순』 연구, 『한국언어문화』 18, 한국언어문화회, 2000.)

습관들에 대한 미약한 접근들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소박하게나마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민속자료간행회 유인본, 『고금소총 제 1집』, 1959.

김현룡 옮김, 『고금소총』, 자유문학사, 2008.

강상순, 『조선 전기 성 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119~154쪽.

김민영, 『육담에 나타난 성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60쪽.

김세라, 『『古今笑叢』에 나타난 남녀의 권력관계 연구』,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2016, 115~139쪽.

김영진, 『한국육담개론』, 『한국 육담의 세계관』, 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9~29쪽.

류정월,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391~418쪽.

류정월, 『문헌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417~444쪽.

박이은실,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낙인의 문제-성(별)전환인들의 성노동에 대하여』,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팀 지음, 도서출판 여이연, 2007, 61~89쪽.

신동훈,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 『한국 육담의 세계관』, 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81~116쪽.

윤석산, 『『어면순』 연구』, 『한국언어문화』 1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403~426쪽.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302쪽.

임원혁, 『송세림론-『어면순』의 창작배경에 대한 일고』,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학회, 2006, 135~179쪽.

정고미라,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엮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13~41쪽.

정병설, 『조선 후기 성의 실상과 배경-『기이재상담』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0, 163~202쪽.

황소령, 『『어면순』 소고 - 성소화를 통한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도남

- 학보』 24, 도남학회, 2012, 149~177쪽.
- 황패강, 「고소설에 나타난 육담의 의식과 세계관」, 『한국 육담의 세계관』, 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149~157쪽.
- Catharine A. mackinnon, 신은철 옮김,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1997, 5~222쪽.
- Georg Simmel,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도서출판 길, 2013, 9~1091쪽.
- Wilhelm Reich, 황선길 옮김, 『파시즘의 대중 심리』, 그린비, 2006, 7~551쪽.
- Wilhelm Reich, 윤수중 옮김, 『오르가즘의 기능』, 그린비, 2005, 7~463쪽.
- Wilhelm Reich, 윤수중 옮김, 『성 혁명』, 중원문화, 2010, 5~375쪽.
- Wilhelm Reich, 윤수중 옮김, 『성 정치』, 중원문화, 2011, 6~364쪽.
- Martha Woodmansee, Mark Osteen, *The New Economic Criticism*, Routledge, 1999, pp.36~37. pp.3~419.
- Karl Marx, 김수행 옮김, 『자본론1[상]』, 2015, 5~501쪽.
- Lynn Hunt, 「서문」,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외설성과 현대성의 기원, 1500-1800』, 린 헌트 엮음, 조한욱 옮김, 책세상, 1996, pp.48~49.
- Ji Hwan Lee, Integration mechanism and Transcendental semiosis, *Semiotica*, issue 225, 2018, pp.57~76.
- Julia Kristeva, semiotics: a critical science and/or a critique of science, *The Kristeva Reader*, trans. Seán Hand, ed. Toril Mo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p.74~88.

ABSTRACT

Critical Analyses on Sexual Economy and  
Penis-capitalism of Literary Erotic-tale

Lee, Ji-hwan

This inquiry analyzes about meanings and values of literary erotic-tale by sexual economy theory and semiotics. It could be suggested that certain types of erotic-tales exclusively relocate the grounds and actions among comprehensive sexual economy into a penis centric and hierarchical structure. Hence, sexual intercourse which is reciprocal and full of effectiveness might become penis-capitalist's exploitation. To examine these, the models about the whole process that produces values from objectification and signification are constructed. One-sidedly, system that exchanges objectified woman molds the ideal type of woman which provides exchange value to man. And this value is for the increasing the phallogocentric value by inter-mediate transference through sexual communication or 'purchase'. So, this inquiry infers the criteria and evaluation system of the process by concentrically collating sex depictions, remarks about the value of penis, sexual preconception, and examining signification processes related to them. Thereby, it is found that understandings about implicitly manufactured 'impossible pleasure with disordered distribution'. It is observed that the telltale clues with which we could trace concealments and distortions about multiplying process of sexual value, that is, value exploitation, evasion of responsibility conducted by penis-capitalist. In more serious cases, they gain sexual dysfunction(orgasmic disorder) that lose sexual generic satisfaction and distort or reduce appropriate ardour to others. And they have cognitive dissonances that interrupt the awareness to realize their coercion or additional violence in various ways. Consequently, we could get the understandings about penis-capitalism myth that regularly

motivates sexual violence. And, the basis of Korean masculinities is arranged in the genealogical view, with consideration about sexual economy that is unreasonably considered as private and secret territory: the apathetic connivance excludes victims from the public realm and frustrate them. In addition, this approach provides the useful theoretical system to discussions about sexual labors and real influence of erotic texts.

**Key Words** sexual economy, semiotics, sexual labor, penis-capitalism, erotic tales

논문투고일 : 2019.06.30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